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활동중심 및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김 명 희

영암초등학교

신 현 숙[†]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3개 학급으로, 각 학급은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n=32$),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n=30$), 무처치 통제 집단($n=30$)에 배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집단구분을 집단간 변인으로,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공분산분석(Analyses of Covariance, ANCOVAs)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의 결과가 유의한 경우, 실험집단(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무처치 통제 집단을 비교한 후, 두 실험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계획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진로태도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진로이해에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직업세계, 자기이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 집단의 진로이해는 무처치 통제 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정도는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 참여 정도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치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우관계 적응수준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활동중심 진로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 학교생활적응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교사-주도 수업보다는 학생-참여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될 때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진로태도는 단기적인 진로교육에 의해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발달시키려면 보다 집중적이며 장기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에 던지는 시사점과 이 연구의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진로교육,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적응, 초등학생

* 이 논문은 제2저자의 지도를 받아 제1저자가 발표한 교육학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숙,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Tel : 062)530-2354, E-mail : shinphd@chonnam.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및 사회성 발달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종합적 학교상담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교육적 개입과 상담활동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렇듯이 종합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al guidance program)의 개념적 기반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역할, 장면, 사건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 생애 발달”(Gysbers & Henderson, 2000, p. 49)로 정의되는 ‘생애 진로 발달(life career development)’에 있다. 더구나 종합적 학교상담에서 진로교육은 교과지도 커리큘럼을 보조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과지도와 연계되어 참 학습 경험(authentic learning experiences)을 제공하는 발판으로 포함된다(예, Gallavan, 2003).

진로발달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이나 상급학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진로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갖추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며, 선택한 진로에 성공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성숙한 태도와 올바른 이해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안창규, 1999). 이와 같은 진로발달은 종합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대상 진로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강조된다(Zunker, 2002).

더구나 진로태도와 이해의 발달은 진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련된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 잘 적응하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직업 선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진로인식은 초등학교 시기에도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이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이러한 관심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된다. 그런데 Super의 진로발달 단계이론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환상기(4-10세)와 흥미기(11-12세)에 놓여 있어 아직은 현실과 타협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자기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로에 대한 태도와 이해, 그리고 결정과 선택은 사전 경험에 기초하고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 아동들에게 노출된 활동과 경험은 다른 발달 시기에 이루어진 활동과 경험에 비교해 보아도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5에서 재인용).

이에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시기부터 진로교육을 시작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직업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성을 갖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지각을 형성하게 되면, 후에 청소년 범죄나 실업 등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 근거할 때, 진로선택의 준비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로태도와 폭넓은 진로이해를 갖추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초

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자아인식, 일과 직업의 세계,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기술,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일과 직업의 교육적 측면에 근거하여 전국 각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예,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2002) 외에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더구나 현행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언어적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학생의 능동적 참여기회의 제한, 다양한 자료의 부족, 활용성 및 현실감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였다(김옥환, 2001).

반면, 외국에서는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의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American School Counseling Association, 2003; Heppner, O'Brien, Hinkelman, & Humphrey, 1994; Murrow-Taylor, Folz, Ellis, & Culbertson, 1999; Whiston & Sexton, 1998). 예를 들면, 진로 가계도(career genogram, career family tree)는 주로 성인 대상 진로상담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근래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예, Moon, Coleman, McCollum, Nelson, & Jensen-Scott, 1993; Okiishi, 1987).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커리큘럼에서 진로 가계도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능력, 관심, 인성 특징들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가족의 진로를 주제로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올바른 이해가 발달한다는 것이다(Gibson, 2005). 특히 어린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이해는 부모에 의해 많은 영향

을 받으며, 진로 가계도가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진로 가계도의 활용은 초등학생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하다(Wahl & Blackhurst, 2000).

이처럼 초·중·고등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학생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활동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Kolb (1984)의 체험학습 모형(experiential learning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학습과정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Dewey의 주장, 능동적 참여 학습을 강조하는 Lewin의 주장, 인지발달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Piaget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발달하는 방식을 정서, 지각, 상징, 행동의 4가지로 구분하고, 개인이 발달하는 4가지 방식에 대응하는 학습양식을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CE),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RO),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 능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AE)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경험에서 시작하여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단계로 나아가며, 더 복잡한 수준에서 다시 사이클을 반복하는 Kolb의 모형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기법과 개입전략들을 절충하는 메타-모형(meta model)이다(Atkinson & Murrell, 1988).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에 체험학습 모형을 적용해 보면, 우선, ‘자기 탐색’을 위한 구체적 경험(CE)에는 과거에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결정에 관한 글쓰기, 자신의 생활에서 생겼던 중요한 사건이나 전환기 시점을 그림으로 그려보기가 있다. 반성적 관찰(RO)에는 자신의 경험이 갖는 가치, 흥미, 관심을 개별적으로 혹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중요도 순서 매겨보

기가 있다. 추상적 개념화(AC)에는 진로와 관련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해 보기가 있다. 능동적 실험(AE)에는 진출하고 싶은 직업세계나 진학하고 싶은 전공 영역의 전문가를 인터뷰 하거나 이력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포함된다(Atkinson & Murrell, 1988).

또한, 체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일의 세계 탐색’을 위한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일의 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 경험(CE)의 예로는 진출하려는 직업세계나 진학하고 싶은 전공영역의 전문가가 하는 일 체험하기(예, one-day shadowing)를 들 수 있다. 반성적 관찰(RO)을 위해서는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직업이나 진학하고 싶은 전공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에 관한 소집단 토론을 할 수 있다. 추상적 개념화(AC)에는 직업사전이나 직업분류표에 있는 직업명과 직업에서 하는 일 찾아보기, 인터넷을 통해 월급과 작업조건, 특혜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진로계획 세워보기가 있다. 능동적 실험(AE)에는 가상 상황에서 취업면접 또는 입시면접 역할극하기, 진출하고 싶은 직업세계에서 시간제 취업하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가 포함된다(Atkinson & Murrell, 1988).

Kolb의 모형은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나 진로상담에 유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Atkinson & Murrell, 1988). 왜냐하면 내담자의 발달적 수준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면서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지도하는데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은 자기 자신, 일과 직업, 교육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Kolb의 모형을 적용하여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매놀이, 시장놀이, 게임, 역할놀이, 협동화 그리기 등을 시도한 결과, 진로태도와 진로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김지윤, 2001). 학년수준을 더 낮추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토의활동, 모둠활동,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도 자아인식, 직업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되었다(이봉순, 2002).

학교장면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진로태도의 하위요인들 중 계획성과 독립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이용옥, 2003), 진로인식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예, 권효숙, 1998; 김성수, 1999; 김옥환, 2001).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예, 강순화, 1990)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자기이해와 자기평가로만 구성될 경우 자신의 특성 파악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다행히 진로발달이 종합적 학교상담에서 주요한 관심영역으로 부각되면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과교육과 진로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의 증

가로 보인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더구나 현행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활동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중심 진로교육을 받은 집단에게 나타난 변화를 무처리 통제 집단하고만 비교하는데 그저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한편 진로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수혜자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활동중심 진로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들의 주요 생활 장면인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한다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태도와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바람직한 행동양식이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안영복, 1984). 반면, 학업에 관심이 적은 학생은 우울하고 수업 장면이나 교우관계, 교사에 대한 태도에서 고립되어 학교생활에 더욱 부적응하게 된다(손희준, 1987). 더구나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은 행동, 정서, 학업의 문제와 더불어 진로의 문제를 함께 호소한다. 종합하면,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는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행동적, 심리적, 학업적 적응과 의미있는 관계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주도적인 능동적 체험활동과 또래들과의 협력적 관계가 중시되므로 진로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참여하는 동기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실시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무처리 통제 집단이나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비하여, 처치 프로그램의 주요소인 진로이해와 진로태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끌어올리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진로발달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하면서도 학교학습 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존의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태도를 향상시킬 것인가?

둘째,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이해를 증가시킬 것인가?

셋째,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킬 것인가?

방 법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활동중심 진로교육이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태도, 진로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활동중심

표 1.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주 제	활 동 내 용
1	자기소개	- 프로그램의 목적과 집단 운영 방법 설명하기 - 자신의 성격, 취미, 관심거리를 소개하고, 친구들을 소개받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이야기 나누기
2	내가 잘 하는 일	-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기 -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기 - 자신의 소질과 하고 싶은 직업의 관련성 짓기
3	나의 모습	- 둘씩 짝지어 각자 자신의 모습(나의 성격, 특징, 장점, 단점, 취미, 특기)에 대하여 발표하기 - 상대에게 비친 내 모습을 듣고 내가 다시 전체 학급에 발표하기
4	나와 주위 사람들	- 나와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을 찾아보고, 동심원에 (가까운 사람들은 안쪽 원에) 그리기 -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기 - 주변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언행에 관한 친교 놀이하기
5	인간관계	- 말 때문에 화가 더 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내가 하는 말투를 상대가 적고, '나-전달법'과 '너-전달법'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별하기 -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가 더 노력해야 할 점으로 친구가 지적한 것을 발표하기
6	내가 하고 싶은 일	<도전 골든 벨 게임> -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에 별칭을 붙여 열거하기 - 어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해당하는 명칭 알아맞히기 게임하기
7	직업의 역할	<직업 연결 게임> - 일과 직업이 나와 주변 세상에 주는 좋은 점을 연결짓는 게임하기 - 직업의 고마움과 소중함에 대하여 발표하기
8	직업 세계 탐방	<스피드 퀴즈 게임> - 과제로 작성해 온 '아버지와 인터뷰' 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직업 탐방하기(비디오 시청 후 내가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 발표하기) - 직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직업 정보를 정리해 보기
9	직업의 종류	<직업 이름 놀이> '숨은 직업 이름 찾기' 게임하기 -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을 발표하기
10	미래 사회의 직업	- 현재의 생활 모습과 10년, 20년 후의 생활 모습을 기록하기 - 인터넷에서 직업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보고, 미래사회에 유망한 직업과 유망한 자격증 찾기 - 내가 원하는 직업과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의 차이를 알아보기 -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을 갖기 위한 나의 각오를 모둠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11	일과 직업	<시장놀이> -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직업과 일을 하는 사람들로 장터 꾸미기 - 그런 직업과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하기
12	나의 경제생활	- 자신의 경제생활 태도, 집의 경제생활을 알고, 고칠 점을 찾아보기 - 올바른 저축 방법을 연습하고, 건전한 경제생활과의 관계를 모둠원들끼리 정리하기
13	일과 삶의 보람	- 일과 관계되는 이야기하기(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등). - 일의 보람 알기 -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과 모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의 차이를 발표하기
14	현명한 선택	<장래 희망 발표회> -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 능력 배양을 위해 준비할 것 조사·발표하기 - 미래 희망 직업이 같은 모둠원들끼리 모여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기

진로교육은 기존의 진로지도를 위해 개발된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2002)의 ‘초등학교용 진로교육 프로그램1,’ 중앙고용정보원(2005)의 ‘진로와 직업 교사용 지도서,’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예, 김정미, 2004; 김지윤, 2001; 이봉순, 2002; 이영희, 2004; 이용옥, 2003), Kolb(1984)의 체험학습 모형을 참고하여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구체적 조작활동과 모방학습, 체험활동, 게임, 토론, 골든 벨 울리기 게임, 마인드맵, 퍼즐조각 맞추기 게임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Kolb(1984)의 체험학습 모형에 기반을 둔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을 위한 구체적 경험으로 소질의 탐색(2회기)과 성격, 특징, 장단점, 취미, 특기의 탐색(3회기)을, 능동적 실험으로 아버지 인터뷰, 직업현장탐방, 직업탐방을 위한 비디오 시청(8회기)을, 추상적 개념화로 하고 싶은 일의 명칭 맞추기(6회기), 직업 이름 찾기 게임(9회기), 직업 관련 인터넷 검색(10회기)을, 반성적 관찰로 희망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찾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 계획하기(14회기)를 포함하였다.

활동중심 진로교육의 효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위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수업중심 진로교육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언어적 설명, 정보제공, 토의, 질의 및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92명이었다. 한 학급은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남=15, 여=17), 다른 한 학급은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교집단(남=16, 여=14), 또 다른 한 학급은 무처리 통제 집단(남=16, 여=14)에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은 진로태도와 진로이해의 발달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속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탐색하는 출발선에 있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진로태도와 진로이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구원(1993)에서 제작한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를,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실시하였다.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먼저, 진로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구원(1993)의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에서 진로태도 검사 문항들을 선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진로태도는 계획성(i.e., 직업목표를 선정한 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태도), 성향(i.e.,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및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 타협성(i.e., 진로선택 시 개인의 욕구와 사회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태도), 결정성(i.e.,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자기의 진로 방향 탐색이나 결정과정에 대한 확신)의 4가지 영역에서 측정하였

표 2.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주 제	수 업 내 용
1	자기소개	- 프로그램의 목적과 집단 운영 방법 설명하기 - 자신을 소개하고 친구들을 소개받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기
2	내가 잘 하는 일	- 소질 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하기 - 흥미와 가지고 싶은 직업의 관련성에 대한 수업하기
3	나의 모습	-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발표하기 - 상대에게 비친 내 모습 알아보고 연습지에 쓰기
4	나와 주위 사람들	- 가족, 친척, 이웃, 주변사람의 종류와 폭에 대하여 설명하기 -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하여 필요한 언행에 대한 수업하기
5	인간관계	- 초등학생들이 겪는 갈등의 종류와 심각성에 대한 수업하기 - 갈등 해결에 건설적인 방법과 파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6	내가 하고 싶은 일	- 어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소개하기 - 내가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택했을 경우와 부모가 원하는 일을 택했을 경우에 각각 예측되는 결과들을 살펴보고 연습지에 쓰기
7	직업의 역할	- 직업은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 사람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얻는 혜택에 관한 수업하기 - 좋은 직업의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기
8	직업 세계 탐방	- 우리 주변에 직업의 종류를 목록으로 제시하고 설명하기 - 직업 정보를 제시하기
9	직업의 종류	- 수집해 온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직업 명칭 소개하기 - 갖고 싶은 직업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과의 관계에 대하여 수업하기
10	미래 사회의 직업	- 미래 사회에서 유망한 직업들에 대하여 소개하기 - 미래 사회에서 유망한 직업과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의 차이를 찾아보기
11	일과 직업	-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드는 직업과 하는 일을 설명하기
12	나의 경제생활	- 건전한 소비 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 자신의 경제생활을 점수 매기는 법 설명하기 - 올바른 저축 방법과 건전한 경제생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
13	일과 삶의 보람	-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천하게 여겨지기 쉬운 직업 알아보기 -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설명하기
14	현명한 선택	- 현명한 직업 선택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적성, 흥미, 능력, 조건)을 설명하기 -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조건에 맞는 직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기 - 자신이 찾은 직업에서 더 필요한 능력이나 조건을 생각하고 찾아보기

다. 진로태도 검사는 하위검사별 5개 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은 1(예), 2(아니오), 3(모르겠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진로태도 검사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0.27~0.37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교육연구원(1993)이 보고한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0.72~0.8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9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진로태도 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46~.58, 사후검사에서 .40~.57, 전체 사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 전체 사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7이었다.

다음, 진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구원(1993)의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에서 진로능력 검사 문항들을 선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진로능력 검사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i.e.,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에서 직업의 종류와 명칭, 특징, 작업조건, 전망 등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 20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i.e., 자신의 흥미, 태도, 성격 등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6개,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i.e., 자신의 적성, 흥미와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8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i.e.,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를 측정하는 문항 6개로,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5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의 답을 선택하며, 정답을 ‘1’ 오답을 ‘0’으로 채점하였다.

강원도교육연구원(1993)이 보고한 진로능력 검사의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0.28~0.40으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2, 하위요인별 문항 변별도 범위는 0.23~0.57, 문항 곤란도 범위는 22.2~75.1, 내적 일치도는 .70~.75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진로능력 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 하위요인별로 .49~.70, 사후검사 하위요인별로 .32~.69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전체 사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 전체 사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이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순자(2002)가 재구성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 참여의 5개 하위영역들로 구분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2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였다(서순자, 2002).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학교생활적응 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사전검사에서 .82~.89, 사후검사에서 .56~.90, 전체 사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6, 전체 사후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이었다.

연구절차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수업중심 진

로교육 프로그램은 담임교사가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매주 2회기씩(회기당 40분) 7주에 걸쳐 총 14회기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본 연구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담임교사가 연구대상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직전에, 본 연구자가 진로의식성숙 검사와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가 종료된 직 후, 본 연구자가 동일한 검사를 사후검사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12.0(Windows version)으로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종속변인(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별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ANCOVA 결과가 유의한 경우, 실험집단(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무처치 통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 다시 두 실험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Helmert 방식에 의한 계획비교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결 과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분석에 앞서, 본 자료가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Levene의 등분산가정($p > .05$)과 회귀 동질성 가정($p > .05$)에 부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의 집단간 차이

각 집단(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 무처치 통제 집단)의 진로태도 하위요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진로태도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진로태도 검사 하위요인들과 진로태도 총점에 있어서 세 집단(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 무처치 통제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이해의 집단간 차이

각 집단의 진로이해 하위요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 진로이해 총점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우선,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치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이해에 있어서도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치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표 3. 진로태도의 기술통계치와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 요인	집단	사전점수(공변인)		사 후 점 수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정평균	표준오차	
계획성	통제	7.73	2.77	7.20	1.83	7.15	.30	.24
	수업중심	7.33	1.97	6.90	1.99	7.01	.30	
	활동중심	7.72	2.25	6.91	1.80	6.86	.30	
	전체	7.60	2.33	7.00	1.86			
성향	통제	8.20	2.24	7.97	1.81	7.73	.28	.22
	수업중심	7.83	1.86	7.53	1.85	7.47	.28	
	활동중심	7.13	1.72	7.34	1.64	7.62	.27	
	전체	7.71	1.98	7.61	1.77			
타협성	통제	7.83	2.56	7.50	2.70	7.33	.34	1.12
	수업중심	7.73	2.18	7.00	1.95	6.87	.34	
	활동중심	6.81	1.93	6.34	1.43	6.63	.33	
	전체	7.45	2.26	6.93	2.11			
결정성	통제	7.90	2.47	7.37	2.14	7.30	.32	.69
	수업중심	7.53	1.63	7.47	1.80	7.54	.32	
	활동중심	7.75	1.97	7.03	1.69	7.02	.31	
	전체	7.73	2.03	7.28	1.87			
총 점	통제	31.67	8.84	30.03	6.39	29.40	.80	.58
	수업중심	30.43	5.66	28.90	6.17	28.92	.80	
	활동중심	29.41	6.42	27.63	4.72	28.20	.78	
	전체	30.48	7.07	28.83	5.81			

무처치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 정도가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치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

중심 진로교육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치 통제 집단에 비하여 진로이해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에 비해서도 진로이해 총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이해의 기술통계치와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 요인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F	계획비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정 평균	표준 오차		
직업 세계	통제	11.47	3.28	11.90	3.10	11.55	.26	4.16*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10.83	4.02	12.20	3.31	12.36	.26		
	활동중심	10.81	2.98	12.38	2.90	12.55	.25		
	전체	11.03	3.42	12.16	3.08				
자기 이해	통제	2.87	1.46	3.23	2.03	3.41	.22	4.18*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3.10	1.27	3.90	1.45	3.89	.22		
	활동중심	3.28	1.22	4.44	1.13	4.28	.21		
	전체	3.09	1.32	3.87	1.63				
직업 선택	통제	4.27	2.45	4.83	2.23	5.14	.24	5.42**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5.07	2.05	5.50	2.18	5.26	.24		
	활동중심	4.81	1.98	6.22	1.45	6.15	.24		
	전체	4.72	2.17	5.53	2.04				
의사 결정	통제	2.47	1.78	2.80	1.34	2.90	.17	3.68*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67	1.42	3.30	1.48	3.26	.17		
	활동중심	2.69	1.36	3.59	1.38	3.54	.16		
	전체	2.61	1.51	3.24	1.43				
총점	통제	21.07	7.27	22.77	7.09	23.09	.48	13.21***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1.67	6.67	24.90	6.39	24.71	.48		
	활동중심	21.59	6.28	26.62	5.44	26.50	.46		
	전체	21.45	6.67	24.80	6.45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생활적응의 집단간 차이

각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 학교생활적응 총점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우선, 학습활동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유의하였지만, 계획비교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 무처치 통제 집단의 학습활동 적응 수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교우관계와 무처치 통제 집단의 교우관계를 비교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

표 5. 학교생활적응의 기술통계치와 공분산분석 결과

하위 요인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F	계획비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정 평균	표준 오차		
학습 활동	통제	25.40	7.50	26.03	7.51	24.93	.88	3.12*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3.00	5.15	24.33	4.88	25.45	.88		
	활동중심	24.22	4.71	27.78	8.70	25.77	.85		
	전체	24.21	5.90	26.09	7.30				
교우 관계	통제	26.97	7.48	27.63	7.47	26.52	.35	8.73***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4.47	5.80	25.27	5.46	26.42	.35		
	활동중심	25.78	4.43	28.25	3.89	28.21	.34		
	전체	25.74	6.02	27.08	5.84				
교사 와의 관계	통제	26.03	9.90	26.10	10.62	23.11	.48	4.92**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0.70	6.53	21.53	6.59	23.68	.47		
	활동중심	22.09	6.06	24.28	5.31	25.08	.45		
	전체	22.92	7.90	23.98	7.93				
규칙 준수	통제	25.83	8.87	26.30	9.27	24.66	.35	9.30***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2.40	4.74	23.77	4.64	25.46	.35		
	활동중심	24.19	4.08	26.75	3.78	26.71	.33		
	전체	24.14	6.31	25.63	6.39				
학교 행사 참여	통제	26.27	8.47	26.97	8.60	25.57	.41	9.08***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23.03	6.32	24.23	6.19	25.86	.41		
	활동중심	25.00	5.44	27.97	5.05	27.76	.39		
	전체	24.77	6.88	26.42	6.85				
총점	통제	105.10	32.61	133.03	40.91	124.05	1.44	18.21***	활동, 수업 > 통제*** 활동 > 수업***
	수업중심	90.60	17.74	119.13	21.71	127.46	1.44		
	활동중심	97.06	15.85	135.03	19.03	135.65	1.37		
	전체	97.58	23.66	129.20	29.28				

* $p < .05$. ** $p < .01$. *** $p < .001$.

로교육 집단에 비하여 교우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에 비하여 교사와의 관계 측면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준수에 있어서도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에 비하여 규칙준수의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행사참여에 있어서도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보다 학교행사참여의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이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학교생활적응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총점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총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논 의

이 연구는 진로발달의 초보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92명을 각각 소속 학급에 따라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 무처리 통제 집단에 배정하였다.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내용은 동일하였으며, 매주 2회씩 총 14회에 걸쳐 7주 동안 실시하였다. 다만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습 자료의 교사-주도적 전달, 언어적 내용의 전달을 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중심 진로교육과 수업중심 진로교육이 진로태도에 미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진로이해 수준은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진로이해 수준이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은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두 처리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 수준은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언어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진로성숙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최형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경매놀이, 시장놀이, 게임, 역할놀이 등을 도입하여 구성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진로태도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김지윤(2001)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진로이해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관심, 일의 세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7주의 짧은 시간 동안에 실시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 내고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며 개인의 욕구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타협하는 성숙한 진로태도를 형성시키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는 진로 탐색의 초기 단계로서, 연구대상이 진로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진로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유예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로에 대한 태도 또한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처럼 단기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와 단편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는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성숙한 진로태도까지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있어서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과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교사와의 관계, 규칙 준수, 학교행사참여 수준이 무처리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진로교육의 처치를 받은 두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의 교우관계가 수업중심 진로교육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활동중심 진로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수업중심 진로교육에 참여한 집단보다 학습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생활적응 영역들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로써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의 증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에 대한 흥미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김옥환과 조봉환(199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탐색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가진 학생일수록 자신이 생활하는 주요 장면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업에 대한 흥미도 높을 것이다. 학업에 대한 흥미는 곧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들에 전이되어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또래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풍부한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사-주도적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교활동 참여의 동기가 촉진되고, 따라서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는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키고, 이에 더하여 학교생활적응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직업선택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중심의 진로교육보다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활동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진로태도의 성숙을 도모하려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

로그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던지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1개교에 있는 5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진로에 대한 경험이 다양하거나,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들에서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7주 동안 실시된 14회기의 단기 효과만을 검증하였으므로, 장기간 훈련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프로그램 효과의 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진로태도와 진로이해를 평가하는 일부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았다. 따라서 이들 하위척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의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다. 넷째, 최근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서 권장되고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방법들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학교장면에서 손쉽게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지도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연구원 (1993). 초·중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춘천: 강원도교육연구원.
- 강순화 (1990).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6,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02~119.
- 권효숙 (1998).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1999).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환 (2001). 초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옥환, 조봉환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과 기초적성 및 학업 흥미와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9, 123~144.
- 김정미 (2004).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체험학습 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01).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2002). 초등학교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1.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 서순자 (2002).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준 (1987).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 (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규 (1999). 진로발달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봉순 (2002). 활동중심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4). 활동중심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 진로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옥 (2003). 집단진로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진로성숙 및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고용정보원 (2005). 진로와 직업 교사용 지도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최형심 (1999). 초등학교를 위한 활동중심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진로교육학회 (1995). 진로판단 · 권고제에 관한 연구 특집호. 서울: 한국진로교육학회.
- American School Counseling Association (2003). *The ASCA national model: A framework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 Alexandria, VA: Author.
- Atkinson, G. Jr., & Murrell, P. H. (1988). Kolb'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 meta-model for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74-377.
- Gallavan, N. P. (2003).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place of 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he Social Studies*, 94(1), 15-19.
- Gibson, D. M. (2005). The use of genograms in career counseling wit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 353-362.
- Gysbers, N. C., & Henderson, P. (2000). *Developing and managing your school guidance program* (3rd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Heppner, M. J., O'Brien, K. M., Hinkelman, J. M., & Humphrey, C. F. (1994). Shifting the paradigm: The use of creativity in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 77-86.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on, S. M., Coleman, V. D., McCollum, E. E., Nelson, T. S., & Jensen-Scott, R. L. (1993). Using the genogram to facilitate career decisions: A case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4, 45-56.
- Murrow-Taylor, C., Folz, B. M., Ellis, M. R., & Culbertson, K. (1999). A multicultural career fair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 241-243.
- Okiishi, R. W. (1987). The genogram as a tool in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139-143.
- Wahl, K. H., & Blackhurst, A. (2000). Factors affecting the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 367-374.
- Whiston, S. C., & Sexton, T. L. (1998). A review of school counseling outcome research: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6, 412-416.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원고접수일 : 2007. 3. 26.

게재결정일 : 2007. 5. 30.

The Effects of Activity-Based versus Lecture-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Attitude, Career Understanding,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yunghee Kim

Young-Am Elementary School

Hyeonsook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ctivity-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attitude, career understanding,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activity-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n=32$) were compared to those of lecture-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n=30$) and no-treatment control group ($n=30$). Fifth-grade students in three classrooms at one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ng pre- and post-tests of the Career Awareness Maturity Test and the 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The analyses of covariance (ANCOVAs) with groups as between-subjects variable and career attitude, career understanding and school adjustment as dependent variables, and planned comparison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the activity-based and the lecture-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s did not enhance participants' career attitude. Second, differences between two career education programs and no-treatment control group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work, self, and decision-making were significant; howeve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reer education programs were not significant. Also, the activity-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career choice than the lecture-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Third, differences between two career education programs and no-treatment control group in the level of relations with teachers, rule compliance, and school activity participation were significant. Again, the activity-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teachers, rule compliance, and school activity participation than the lecture-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In conclusion, the activity-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career understanding and improving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areer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 to be based toward activities and experiential learning rather than toward teacher-led lectures. Also, more intensive and longer-term career education interventions should be implemented to develop career attitude. Finall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education, career attitude, career understanding,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